

숨은그림찾기 <103>



찾아(보)세(요) A자, 갈매기, 성냥개비, 은행잎, 음표, 열대어, 종이배, 펜촉, 구두

초보운전의 문구

- ▲섹스어필형
-원조적 운전
-첫경험
-오빠~박으면 아파(?)
-오빠~제발 살살
▲협박형
-운전경력 3시간 주의 요망!
-내 뒤에 있는 당신은 현재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 건들면 개
▲애교형
-어머! 이 글씨가 보이세요? 그럼 너무 볼enswert



지난주 정답
음표, 서툰족, 칫솔, 대접, 몽당연필, 아이스크림, 가자, 열대어, 부엌칼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당첨자: 이하정(나주시 금천면) 김지은(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국내 첫 다목적 위성 '아리랑 1호' 발사

1999년 12월 21일 오후 4시13분(현지시간 20일 밤 11시13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국내 최초의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1호가 우주로 향했다.

당시 아리랑 1호는 발사 후 81초만에 1단계 로켓을 분리했으며 13분 48초 뒤 목표 궤도 685km 상공에 진입해 남극에 있는 미항공우주국(NASA) 맥머도 지상국에 첫 신호를 보내왔다. 새천년을 열을 앞두고 이뤄진 아리랑 1호의 발사 성공은 우리 나라도 21세기 본격적인 우주 개발 시대를 열게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리랑 1호는 우리나라에서 발사된 7번째 위성. 우리별 1호(1992년), 우리별 2호(1993), 무궁화 1호(1995), 무궁화 2호(1996), 우리별 3호, 무궁화 3호(1999)에 이어 쏘아 올려졌다. 기존 무궁화 1·2·3호가 1톤급 이상 대형 통신 위성, 우리별 1·2·3호는 소형 실험용 위성인데 반해 470kg의 중형 위성 아리랑 1호(높이 235cm·너비 134cm·길이 690cm)는 다목적 실용 위성. 지상 685km 상공에 떠서 하루에 지구를 열네 바퀴 반 돌면서 지상 관측, 해양 관측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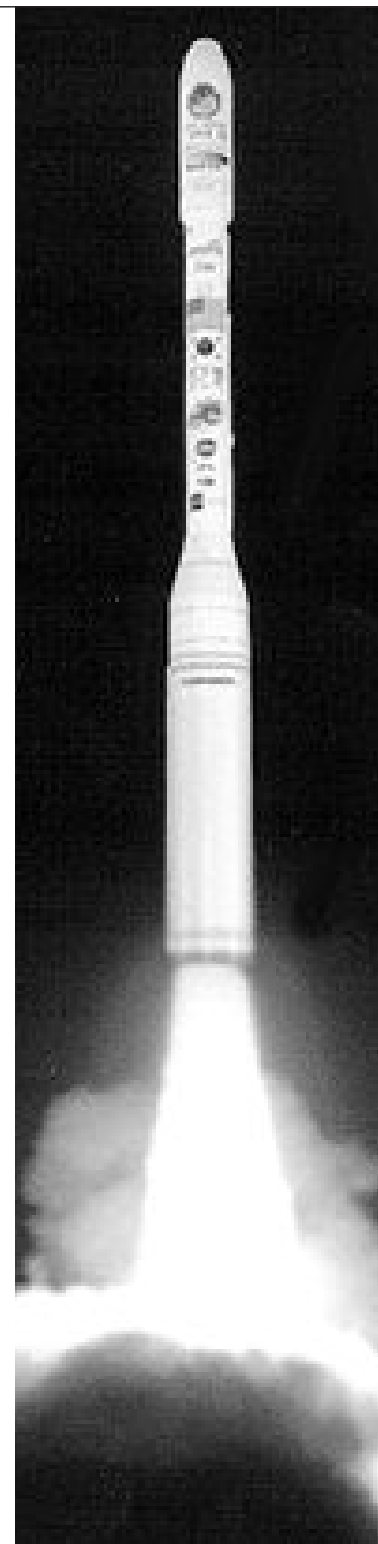
이는 본격적 실용 위성 시대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데다 특정 위성 자료를 외국에서 구입하지 않고 직접 찍을 수 있어 우주 상공의 주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아리랑 1호 발사를 통해 확보한 기술력은 2006년 7월 아리랑 2호의 성공적 발사로 이어졌다. 해외 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했던 것에서 나아가 순수 국내 기술진의 주도로 위성 본체를 만드는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된 것.

특히 아리랑 2호는 아리랑 1호에 비해 해상도가 크게 향상, 한반도의 '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됐다. 아리랑 1호가 6.6m의 해상도(685km상공에서 가로 세로 6.6m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아리랑 2호에 달려 있는 카메라는 해상도가 1m급이다. 이같은 고해상도 인공 위성을 가진 나라도 세계에서 7곳 뿐이다.

더 나아가 오는 2008년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이 고층군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스페이스 코리아'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퀴즈

94. '피겨여왕'인 이 선수가 16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회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왕중왕' 자리에 오른 것으로, '피겨 여왕'에서 당당히 '피겨 여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 ①김연아 ②아사다 마오 ③캐롤라인 장 ④키미 미야노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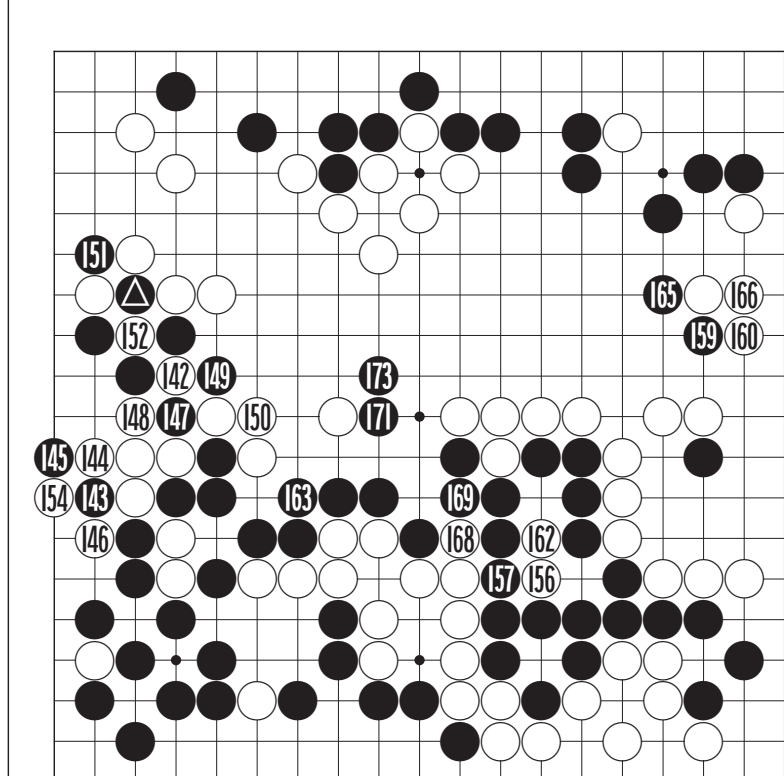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9일(음 11월 10일 丁亥)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the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제188회 전국체전

처절한 손해 패 8보(142~173)

일반부 결승전

白 송홍석 6단 (경기도)
黑 김남훈 7단 (광주시)

김남훈 7단 군복무중 특별휴가를 만들어 전국체전에 참가했다. 그래서 일반인 참가자 보다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의미가 있다. 결승까지는 술한 강자들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했으나 막상 결승에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교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혹 143으로 찾고 계속해서 145로 일선을 찢어간 것은 147에 끊기 위한 예비동작으로 처절한 저항이다. 보통 때라면 생각하기 힘든 수이나 지금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때다. 드디어 흑 151로 물어서 본격적인 패가 되었다. 힘겹고 처절하게 패를

만들기는 했으나 이 패는 역지 패의 의미가 담겨 있다. 흑은 147로 잡아 넣어 이미 손해를 보고 들어가고 있고 또 143, 145의 두점이 패의 와중에서 잡힌 손해도 있다. 이런 손해면 이 패를 필히 이겨야만 한다는 애긴데 욕심과는 달리 팻감이 없어서 패를 이기기가 힘든다는 것이 문제다. 백에게는 156부터 중앙 흑 대마를 공략하는 팻감이 3개 있으며 이것으로 패는 백의 승리가 되었다. 결국 흑은 173으로 중앙을 돌파하는 정도로 타협하고 만다. 153-147, 155, 161, 167-▲, 158, 164, 172-152, 170-142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루이, 여류국수전 8강 합류

루이 나이웨이 9단이 지난 17일 한 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3기 가그린배 프로여류국수전 16강전에서 김은선 3단에게 148수 끝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8강에 합류했다.

좌편 전투에서 주도권을 잡은 루이 9단은 흑의 양군마를 끊어내어 몰아붙여 손쉽게 항서를 받아냈다.

현재 국내 여류 기전을 독식하고 있는 루이 9단은 올해 여성 기사와의 대국에서 14승1패를 기록하는 등 1인 지배체제를 굳히고 있다. 여류국수전에서 3년 연속, 통산 여섯 번째 우승을 노리는 루이 9단의 8강 상대는 권희진 5단이다. 우승상금은 1천1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058>

Can you do me a favor? 도와주시겠어요?

- A : Can you do me a favor, Greg?
B : Sure. What is it?
A : I can't not find a lady's room. Do you know where the nearest one is?
B : I am sorry, I don't know. Let's ask someone.

- A : 그럭, 도와주시겠어요?
B : 그러죠, 무슨 일인데요?
A : 여자 화장실이 안 보이는데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B : 죄송합니다. 모르겠는데요. 다른 분에게 물어보시죠.

- \* favor : 호의, 도와 줌
\* lady's room : 여자 화장실
\* Can you do me a favor? = Could you do me a favor? = Can you help m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058>

文字(もじ)化(ば)けした。 글자가 깨져 버렸어.

- A : この前(まえ)のメル読(よ)めなかった。
B : 何(なん)で。
A : 文字(もじ)化(ば)けした。
B : そうなんだ。後(あと)で、もう一回(いっかい)送(おく)るよ。

- A : 저번에 보낸 메일 못 읽었어.
B : 왜?
A : 글자가 깨져 버렸어.
B : 그랬구나, 나중에 한 번 더 보낼게.

化(ば)ける : 변하다, 둔갑하다
化(ば)け物(もの) : 도깨비, 괴물
お化(ば)け屋敷(やしき) : 도깨비집
もう一回(いっかい) : 한 번 더
文字(もじ) : 글자, 문자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35>

你会不会说汉语? 너 중국말 할 줄 아니?

- A : 你会不会说汉语?
Nǐ huì bù huì shuō hán yǔ?
니 회 부 휘 쉬 셴 호 한 유?
B : 我会说汉语。
Wǒ huì shuō hán yǔ.
오 휘 시 셴 호 한 유.
A : 说得好吗?
shuō de hǎo ma?
쇼 득 호 호 만 아?
B : 还可以。
hái kěyǐ.
하이 케 이.
A : 너 중국말 할 줄 아니?
B : 나 중국말 할 줄 몰라.
A : 왜 아니?
B : 기억력 썩었어.

汉语 [hànyǔ] 중국어
说 [shuō] 말할 때, 그릇처럼
可以 [kěyǐ] [할] 줄 모르, 괜찮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675>

遠交近攻(원교근공)
멀린, 사귀고, 가까이, 친, 칠 공

원교근공(遠交近攻)은 먼 나라와는 사귀고 가까운 나라는 공격하는 책략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중 하나이다.

전국시대 진(秦)의 소양왕(昭襄王)이 멀리 있는 제(齊)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자 책사(策士)인 범제(范雎)가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원교근공(遠交近攻)책'을 진언(進言)하였다. 사실 소양왕은 가능한 진나라의 병력을 아끼고, 동맹국인 한(韓)·위(魏) 두 나라의 병력을 동원하여 제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범제는 동맹국이라고 하여도 신용할 수 없는 처지에 타국 너머 멀리 떨어져 있는 제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런데 진의 대군(大軍)을 출동시키는 것은 더욱 주변에 있는 한·위 두 나라에게 힘을 실어주어, 마치 '적에게 병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식량을 갖다 주는 꼴'이 되므로 원교근공이 최선책임을 강조하였다. 즉 한 치의 땅을 얻어도 진의 촛토(寸土)가 되고, 한 자의 땅을 얻어도 진의 척지(尺地)가 되기 때문이다.

이 날을 계기로 소양왕의 신임을 얻은 범제는 재상이 되어 응후(應侯)에 봉해졌고, 그의 지론인 원교근공책은 전하 통일을 지향하는 진나라의 국시(國是)가 되었으며, 오늘날에 까지 중국의 외교정책의 하나로 역할을 하고 있다. (史記·范雎列傳)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더마플라스트 밴드'.